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 796-0267 /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병 치료 224E204 street Bronx (718) 563-1209	브롱스한의원(서호) 한의사 박 차녀영 각종영양제, 한약, 침(채질력) 전문 908:347-1933, 2303 908:233-0138(H)
홍표 홍침대 장수돌침대☆☆☆☆☆ 뉴저지미건의료기 리지필드한아름소핑몰내 Tel. (201)945-9944(B) (201) 527-8040(cp)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해레나) (203) 629-0266(O) Fax (203) 629-9073 각종 보험, 투자	그레이스 여성복 남성복 (파도 회집 옆) (718) 461-5545 (917) 572-1800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s Mija(세실리아) Son (914)310-6990 (cell)	뉴욕정비(자동차) 정우진, 브롱스 2801Webster Ave. (718) 295-3252
통증 증제의학 이만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 220Pl. Bayside, 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대표 : 김 윤 환 (Francisco) 영 희 (Julie) 16w 32nd St. #1106 nyc10001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 300 맨하탄(212) 947-8382(B) 뉴저지(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의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 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뉴욕 최초여성공인장례인 (718)224-2390, (888)224-6088	서 동 권 합동 법률 사무소 사고, 상해 전문 (718) 461-3131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American Landing 부동산 매매에서 모계 지 대출까지(주택, 상가 정영오(루가) 사업체) (201)-4619999 (B) (917)232-8890 Cell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 철 공인회계사 Young&Jullan, LLC 150-05 Nothen Blvd 2F1 Flusing, NY (노던150가) (718) 888-1217
뉴저지 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ant 445 Grand Ave PalisadesPark, NJ 07650 Tel: (201)461-4447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기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Fax) (718)353-8291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브롱스 소망이음원 수지식물 건너편, Food Town 앞, 주차장 완비 매주 일요일은 쉽니다 (718) 329-1678	정일편(스테파니)치과 콜럼비아 치과대학교 졸업 엘름허스트(시립병원앞) (718) 426-4343 베이사이드(대동면역주차장옆) (718) 352-2434	리 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 \$40(세금포함) (718)205-1200 Kim

제1644호

2011.1.9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오 3, 13 - 17)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320-3937

Fax : (718) 405-0053



주님 세례 축일

ㄹ 입당송

(마태 3,16-17)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대영광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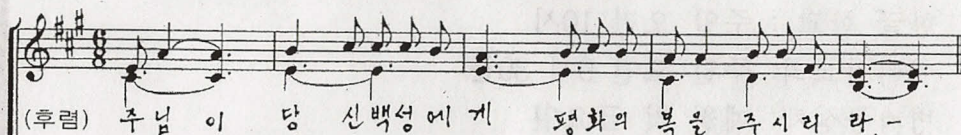
ㄹ 제1독서

(여기에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종이 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2,1-46-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2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
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3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4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5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7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
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29(28), 1과 2, 3과 4, 3과 9-10(◎ 11-))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1.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2.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물고,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3.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ㄹ 제2독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38)

그 무렵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35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36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37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
래아 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38 하느님
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
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마르 9,7)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ㄹ 복 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이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3-17)

- 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 15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¹⁶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들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¹⁷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믿음을입니다. ● 그리스도님, 관미합니다.

<신경>

☞ 영성제중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 하였네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1/9 8시	홍 승표	박 증복	홍 명숙
11시	민 경구	김 성래	이 정림
1/16 8시	이 윤형	한 성천	한 회자
11시	양 명상	김 철중	김 미수
			양 정남

복사 : 윤정훈 & 이종재 이종빈 & 김현진

불현차 : 김성호&박중환 가족 다음주 : 주몽길&유효원 가족
원금봉사 : 치명자 들의 모후 Pt 다음주 : 사랑하을 어머니 Pt
공전봉사 : 김 현환

본당 팬 공행사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 미사 신정하신 분들

이요한[종봉](가정미사) : 서부웨체스터 구역원 일동봉헌

송배내덕표[구침](생미사) : 조로물로[강회] 가족봉헌

정필림[호봉](생미사) : 정두화 가족봉헌

박모니카, 데레사, 안나, 사라, 이반(생미사) : 가족봉헌

로렌, 비트라스, 맥스로빈, 캐리, 엘리자벳(생미사) : 가족봉헌

공멜리디나(연미사) : 용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부모님(연미사) : 박포란체스카[영숙] 봉헌

손요한[영석](연미사) : 정바오로[철수], 조로물로[강회]

성가대, 정두화 가족봉헌

박누관다[경애](연미사) : 박다나엘, 박아네스 봉헌

조장님(연미사) : 한빅토리아노[성천] 가족봉헌

부모님(연미사) : 한빅토리아노[성천] 가족봉헌

조모이마리아[화인](연미사) : 박스테파노[세복] 가족봉헌

최물리에따[경자](연미사) : 정수잔나[희숙] 봉헌

불쌍한영국영혼을 위하여(연미사) : 정수잔나[희숙] 봉헌

성가

입당 : 내 맘의 천주여 (성가 24)

응원 : 주여 나의 몸과 맘 (성가 211)

성제 : 사랑이 없으면 (성가 415)

임 하소서 성령이여 (성가 145)

피견 : 여두움을 밝히소서 (성가 20)

교회 소식

※ 본당을 활성화 합니다. (1단계)

인사 합니다 : “형제, 자매님 사랑 합니다”

전화 합니다 : 매주 1회 이상 잘 모르시는 신자 분께 전화합니다.

기도 합니다 : 주님(예수님)께 아침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잘 될 때 까지 함께 노력합니다.)

(1) 예비자 교리반 시작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새 예비자 교리반이 시작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이번기회에 꼭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 베드로로회 중회 및 신년 하례식 안내

베드로 회 신년하례식 및 중회가 오는(주일) 오후5시 천교실

에서 있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구역회 소식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빠지지 말고 구역회를 해주시기

바라며 2주전에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보에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4) 미동복부 가톨릭 성서모임 안내

2011년 교우들을 위해 매월1회 성경강좌를 준비 하였습니다.

이번 란은 1월24일(월) 오후8시-9시30분에 강사 이환규[안드레이]

신부님을 모시고 마르나성당 에서 구역성경 읽은 강연이 있습니다.

(5) 확대 사목회의 소식

확대 사회복지회가 이번주 12월(수) 저녁8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6) 민속의 날 행사조직

대건회 주최로 1월30일(주일) 11시 미사후 친교실에서 행사가

있고 벽국이 준비되어 있으며 뽕잎, 부호, 떡쥬기, 노래자랑 외 여러 가지 게임과 푸짐한 복권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 이태성 신부님의 다큐멘터리 촬영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로 활동하시다 암으로 돌아가신 신부님에 관한 다큐멘타리를 오는 11시 미사후(1시) 촬영합니다.

(8) 문당 모임

* 푸리아 월례회의가 다음주 16월(주일) 11시 미사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동부해체스터 구역회가 1월15일(토) 저녁8시에 최준 (914-773-9070)

형제님 맥에서 있습니다.

* 중부브롬즈 구역회가 1월16일(주일) 저녁5시에 오정자 [카타리나]

(718-584-5084) 자매님 맥에서 있습니다.

* 연립회 모임이 1월23일(주일) 11시 미사후 셀타 202호에서 있습니다.

* 2010년도 성서 원독자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미사를 이번달부터 신청자에 한해 주문판매 합니다.

(1년구독료 \$50)이며 성물부나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이번달(1월) 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중부 브롬즈 구역입니다.

다음 달(2월)은 서부브롬즈 및 맨하탄 차례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2,162.87.00

신년헌금 : \$ 2,888.00

감사헌금 : \$ 100.00(익명) 2차 헌금: \$ 593.00

교부금 : \$ 2,430.00

이제이(완남) 기부금(완남) 포병전(1-2) 김신자(1) 김부곤(1-6)

김관희(1) 이영숙(1) 이표순(1) 이철호(1) 김문자(1)

윤익수(1) 윤기운(1-2) 한경수(1) 지창욱(1-2) 신홍원(1)

200주년 Campaign
금부곤(1-6)

누계 : \$ 173,708.00

각자 다르게 주어진 삶

내가 6시 45분 아침 미사엔 참여하기 위해 6시 20분 전후로 집을 나서면

거의 매일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완전 줌은 부부가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

선다. 그들은 맨하탄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부부이다. 그들은

집을 나서면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요즘같이 아적 캄캄할 때에는 보이

지도 않지만, 나도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려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

를 시작한다. 그리고 한 두세집 지나면 이번에는 한 동네에 사는 남자가

개를 산보시키는 모습이 차의 불빛 안으로 들어온다. 그 남자 역시 나의

차를 향해 손을 들어 보인다. 아마도 그는 아침 출근 전에 개 산보를 시키

는 것 같다. 개라는 녀석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은 산보를 시

켜야 하니까. 나 역시 예전에 개 한 마리를 키웠었는데 그 바쁜 중에서도

새벽에 눈을 뜨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녀석부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곤 했

다. 개를 키우려면 그만큼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동네사람들을 만

나면서 성당엘가서 미사참례를 하고 7시가 좀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느라면

터리기 운동을 하는 완전 남자를 만난다. 그 사람 역시 비오는 날, 곧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한다. 내가 사는

집 앞길은 차가 별로 안 다녀서 그렇게 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건기 운동이나, 달리기 운동을 하기가 좋게 되어 있다. 그 역시 나

의 차를 보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뛰다. 동시에 완전 베비씨터가 저

편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한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매일 완전

에 아기를 돌보기 위해 그 집으로 오곤 한다. 그 집 젊은 부부 역시 매일

아침 아기를 그 베비씨터에게 맡기고 직장엘 간다. 그리고 8시가 좀 넘으

면 이집집에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등교시키는 모습을

본다. 나는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제각기 많은 바가 다 다르지만, 그렇게

완전히 자신들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는 다 다른 삶들이 있고, 그 삶이 어떻게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정말이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마음

에 안 든다고, 시시하게 보인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각자에게

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일들이 있고, 그렇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 아닐

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의 손자는 이제 여섯 살이 되어오는데 내가 저녁

에 부엌에 들어가 국경을 하려고 하면 자기도 한다고 법석이다. 자기의 책

지를 모르는 칠부지이다.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이 시시하다고

다른 일을 하려고 덤빈다면 그런 사람은 마치 국경을 하려고 하는 나의 손

자 같은 사람이 아닐까? 나 역시 집에서 손자를 돌보면서 때로는 참 너무

시시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 무엇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집에서 손자를 돌보는 일이 지금 나

에게 주어진 삶인 것 같다. 우 몸은